

수주째 고온과 가뭄... 필멸 끓는 지구촌



프랑스 군인들이 23일(현지시간) 폭염과 잦은 들불에 시달리고 있는 스웨덴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해 스톡홀름 일란다 공항에 도착한 모습(왼쪽)과 같은 날 일본 도쿄 북부 구마가야(熊谷) 시의 거리 전광판에 현재 기온이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 아프리카 51.3도...북극 이상고온 시달려

### 일본 40도 넘어 15명 사망 북유럽 전례없는 가뭄·들불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폐쇄 영국 '정원 물주기'도 제한

지구촌 곳곳이 기록적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 많은 농가가 가뭄과 들불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병원에 실려 가고 있으며, 관광지는 폐쇄되고 있다고 AFP와 dpa 등 외신이 23일 보도했다.

유럽 곳곳에서는 수주째 계속되는 이상 고온과 가뭄으로 날로 고온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북유럽 지역의 폭염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1세기 동안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 중인 스웨덴에서는 농민들이 가축들

을 살처분하고 있다. 가축들을 먹일 건조가 더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스웨덴 정부는 전국적으로 들불이 50건 이상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추운 날씨와 눈으로 잘 알려진 스웨덴으로서는 전례 없는 들불에 대응이 쉽지 않았던 셈이다.

폴란드 농업부는 이례적인 봄 가뭄으로 9만1000개 이상의 농장이 큰 손해를 입었다며 유럽연합(EU)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라트비아 정부는 지난달 농장들의 피해가 막대해지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EU 측에 농업보조금의 조기 지급을 요구했다. 라트비아 서부지역 마을들에는 지난 주 초 대규모 들불로 소개령이 내려졌고, 소방관들은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의 경우 지난 5월과 6월 가뭄을 겪었고 농업생산은 올해 20~50%까지 떨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독일 동부에서는 이달 초 들불이 발생해 삼림 80헥타르가 파괴됐다.

잉글랜드 북서부에서도 방화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들불이 3주간 지속한 끝에 지난 19일야에 진화됐다. 그러나 영국의 강우량은 지난 16일까지 한 달 보름 동안 47mm에 그쳐 들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영국에서는 다음 달 5일 스프링클러와 호수를 이용해 정원에 물을 주는 것이 금지될 예정이며, 대신 목욕물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스는 22일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랐고, 아테네 당국은 도시의 상징인 아크로폴리스의 문을 닫도록 했다. 관광객들과 직원들의 열사병을 우려한 조치였다.

이들 나라에서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탈수와 화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증하는 실정이라고 의료진은 전했다.

이밖에 일본에서도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달 들어 첫 2주간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1만2000명 이상이 병원을 찾았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일본에서는 22일에도 많은 도시가 40도에 근접했으며 폭염이 누그러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교토 통신은 21일 하루에만 노인을 위주로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날 하루 도쿄에서의 구급차 출동 횟수만도 하루 기록으로는 최고인 3091회에 달했다.

이밖에 캐나다와 미국, 아프리카, 북극도 이례적인 이상 고온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기록된 것으로는 최고로 보이는 51.3도까지 기록할 지경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지구의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상 고온에 대해 지구온난화를 유력한 요소로 꼽고 있다고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연합뉴스

## 중국, 한·일·EU·인니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 착수

중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 철강제품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2018년 제62호 공고를 통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산 철강 스테인리스 빌렛(Stainless Steel Billet)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Hot-rolled Stainless Steel Plate(Coil))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선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산시성 타이강 철강유한공사와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라 심사한 결과, 2014~2017년 관련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했다며 반덤핑 조사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이들 4개국에서 수입한 해당 제품의 수량은 중국 전체 수입량의 98%를 차지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국 반덤핑조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이번 반덤핑 조사의 대상은 한국 1개사, EU와 일본 각 3개사, 인도네

시아 2개사다. 또 반덤핑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1~12월 1년간이다. 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다.

상무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2018년 7월 23일부터 1년간 EU,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한다"면서 "설문, 샘플조사, 공청회, 현장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142> 서예가 구양순

구양순(歐陽詢, 557-641)은 호남성 담주임상 출신으로 자는 신본이다. 당나라 초의 대표적 서예가로 해서체에 뛰어났다.

부친 구양홍은 남조 진나라 광주자사로 19주의 군사를 10년동안 감독하였다. 재주와 책략이 있었으나 진의 선제가 의심을 품어 반역죄로 처형하였다. 부친의 친구였던 상서령 강충이 구양순을 임양해 길렀다. 키가 작고 인물이 못나 남의 업신여김을 받았으나 매우 영특했다. 강충에게서 글과 섹을 배웠다. 경전을 폭넓게 읽었는데 특히 삼사(三史)에 정통했다. 수대에서의 벼슬길은 순탄치 못해 수양제 아래서 태상박사를 지냈을 뿐이다. 당 고조 즉위 후 급사증으로 발탁되었다. 정관 원년(627년) 태자승경령·홍문관학사 등을

을 받아 배구, 진숙달과 함께 예문유취 100권을 편찬해 황제에게 진상하니 그 공으로 비단 200단을 받았다.

저수량이 우세남에게 자신의 서체가 구양순과 비교해 어떤지 물었다. 우세남이 말하기를 "구양순은 어떠한 종이 나 붓이라도 원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어찌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저수량이 어찌하면 되냐고 묻자 "당신이 문장의 조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분명 존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남조 왕희지의 서법을 배우고 북조의 웅건한 서체를 흡수했다. 당초의 저수량, 우세남과 함께 삼대가로 불리며 중당의 안진경과 함께 사대가로 불린다. 특히 해서의 극칙(極擘)으로 칭송받았다. 그의 서적은 비서와 서법으로 전해지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구성공예천명(九成宮醴泉銘)이다. 불후

## 붓과 종이 가리지 않은 해서체의 대가

거쳐 발해남한령에 봉해졌다. 그러나 원로 문신으로 정치적 역량은 크지 않았다. 수말기 화폐가 남발되어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 가족을 잘라 종이를 풀로 붙여서 화폐를 만들게 되자 백성들 사이에서 원성이 컸다. 처음으로 개원통보 전을 시행했는데 그에게 글자를 지어서 아울러 쓰게 하여 돌려 읽을 수 있게 하였다. 626년에는 20여만권의 책을 모아놓은 홍문관의 학사가 되어 속직하며 강론하고 연구하였다. 우세남, 지강, 요사렴, 채윤공, 소덕연 등과 함께 학사로 발탁되었다.

초기에는 동진의 왕희지 서법을 모방하였으나 점차 자신만의 독특한 서법을 만들어냈다. 필력이 기이하고 힘이 넘쳐 당시 최고로 꼽혔다. 전서, 예서, 행서, 해서, 초서 등을 자유로이 썼으나 특히 해서에 뛰어났다. 사람들은 그가 쓴 문장을 해서의 전범으로 여겼다. 고조는 그의 필체를 보고 감탄해 "구양순의 서예가 이리도 명성이 있는 줄 몰랐다. 멀리 있는 이민족들이 그의 작품을 보고 분명 그를 우람하고 장대하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색정이 쓴 비석을 본적이 있었다. 그는 한참을 보고 돌아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 삼베 방석을 꺼내고 앉아서 비석 옆에서 밤을 지내며 3일을 머무르다 떠났다. 624년에는 고조의 칙명

의 문장으로 평가되는데 후일 그의 서체를 구성공체, 또는 구체라고 하였다. 구성공예천명은 632년 당 태종이 수왕조의 인수공을 수리해 구성공으로 개칭하고 이곳에 피서하려 갔는데 단맛이 나는 샘물이 솟아난 사실을 기념한 것이다. 시중 위정이 찬(撰)하고 구양순이 썼다. 그의 나이 76세때의 작품으로 비문은 24행이며 50자로 되어 있다. 구양순은 일찍부터 글씨를 쓸때 붓이나 종이의 질을 따지지 않았다. 능서 불탁필(能書不擇筆).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말년에는 자신의 격을 높이며 생활했다. 여우의 털로 붓을 만들고 그위에 토끼의 털을 입혔다. 붓통은 상아나 무소뿔로 만들어서 사용했다. 이렇게 만든 붓이 아니면 글을 쓰지 않았다.

그의 아들 구양통(歐陽通)도 아버지의 글을 열심히 공부해 뛰어난 서예가가 되었다. 부자가 모두 대소구양체(大小歐陽體)로 이름을 떨쳤다. 중서사인을 거쳐 전중감, 발해남의 작위를 수여 받았다. 간언을 주로 하는 남인의 지위에 올라 무관들의 뜻을 거슬렀다. 이에 동료 금장정이 대역죄인으로 사형을 처해졌다. 훗리 내조신이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도 역모로 몰려 사형시켰다.

# 몽칩시다!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서 아침에 눈을뜨면 중개업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는 중개사님! 실장님!들이 많습니다.

(주)가은 부동산 중개법인에서는 개발지, 시행처, npl, 급매물 등 계약성사가 빠른 현장정보를 제공하며, 20여명의 직원들끼리 손님과 매물을 서로 공유하면서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함께 파이팅 하실분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연락처 010-2800-3589

